'서남예술장'…청년 시선으로 물든 인쇄의 거리

14-16일서남동일대서예술축제한마당

광주 시각예술단체 1995Hz 주관 청년 예술가·주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실험

희미한 잉크 냄새가 감도는 골목을 따라 들어서면, 젊은 예술가들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다. 빈 창고에 전시 조명 이 켜지고, 발길이 뜸했던 공간엔 청년들의 작품이 놓였다. 쇠퇴한 거리였던 서남동 인쇄의 거리가 청년 예술의 무대 로다시숨을 쉰다.

광주 시각예술단체 1995헤르츠(Hz)가 행정안전부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서남예술촌'을 꾸리고 있다. 단체는 14-16일 인쇄의 거리 일대에서 지역 예술축제 '서남 예술장'을 열어 그 성과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2022년 금수장관광호텔에서 열린 '계림보부 상 금수예술장'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됐다. '예술'과 '인쇄' 의 공존을 주제로, 청년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마을 실험이다.

행사는 '서남장'과 '예술장' 두 축으로 구성된다.

'서남장'은 서남동의 정체성과 인쇄 문화를 탐구하는 공 공예술 프로그램이다.

첫 레지던시 결과전인 '내려앉아 치훑어라'가 현재 스페 이스빈틀(백서로119번길 23-2)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 주제 는 지역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관찰·해석하자 는 의미를 담고 있다. 3개월간 서남동에 거주한 입주 작가 5 명의 작품들로, 서남동의 기억과 흔적을 재료로 삼은 작품



한옥 카페였던 (구)하노크 공간은 서남예술장의 또다른 중심 공간이 된 다. 이곳에서는 작품 전시 및 판매, 굿즈존이 운영된다.

들이 공간 곳곳에 놓였다.

정현우 1995Hz 팀장은 "청년 예술가들이 거주하며 관찰 한 마을의 흔적을 담은 실험실이라 할 수 있다"며 "주민들 이 직접 공간을 소개하고, 자재를 내어주며 함께 만들어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술장'은 인쇄 거리의 유휴공간 5곳을 전시장으로 삼아 회화·사진·설치·아트상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아트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한옥 카페였던 (구)하노크(동구 백서로137번길 19-1)는 서남예술장의 또 다른 중심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청년 작 가들의 작품, 포스터, 아트북 등이 전시·판매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토요일 저녁에는 인쇄 공정에서 채집한 기계음 과 종이의 질감 소리를 전자음으로 재구성한 DJ파티가 펼 쳐질 예정이다.



스페이스빈틀에서 진행 중인 레지던시 결과전 '내려앉아 치훑어라' 전

또한 행사 기간 중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아티스트 토 크', 인쇄업 2세대가 직접 노하우를 전하는 '로컬 아트 창작 실험실'등다채로운프로그램이이어진다.

정 팀장은 "서남예술장은 '청년·예술·인쇄'가 공존하는 마을 모델을 실험하는 장"이라며 "예술이 산업의 언어를 배 우고, 인쇄가 예술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1995Hz는 단기 프로젝트를 넘어, 서남동의 낡은 인쇄소를 복원·전환한 상시 전시장 '스페이스빈틀'을 중심으로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팀장은 "졸업후 떠나는 청년 예술가들이 머물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쇠퇴한 거리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싶 다"며 "서남동을 찾아 청년 예술의 에너지와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평민 명창 제7회 국창 임방울상 수상

임방울국악진흥회, 26일 시상식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 중채)가 제7회 국창 임방울상 수상 자에 박평민(사진) 명창을 선정했

'국창 임방울상'은 임방울국악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중 국창 임 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기

리고 판소리 계승 및 진흥 발전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 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임방울판소리체험장 6 층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함께 부상 6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1996년 6월 국가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로 인정받은 박 명창은 2009년 제17회 임방울국악제 명 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80년 3월 판소리에 입문한 뒤 1990년부터 33년간 국 창 조상현 선생에게 심청가·춘향가·흥보가·수궁가를 사사했다. 광주시립국극단 수석 단원(1990-1999)으로 활 동하며 전통 창극 심청전·춘향전·놀보전·배비장전 정 기공연에 주연 및 조연으로 출연했고, '창극 심청전' 서 울·울산 공연에서는 심봉사 역을 맡아 예향 광주의 판소 리 예술을 널리 알렸다.

퇴직 후에는 완도와 함평에서 판소리 교실을 운영하 며, 현재는 광주와 목포를 오가며 판소리연구소를 통해 국악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최명진 기자

"불극송 복즉명 투안정길(구사),송 원길(구오),혹석지반대 종조삼치지(상구)"

同人선생의易經강좌

〈제35강〉 6. 천수송(天水訟)下

송괘 구사의 효사는 '불극송, 복즉명 투안, 정길'(不克訟, 復卽命 渝安, 貞吉)이다. 즉 '송사에 이기지 못하니 돌아와 명을 다시 받고, 태도를 바꿔(渝) 편안한 마음으로 바르게 하면길하다'는뜻이다.

송지환(訟	之渙 四重	协)
\equiv		
천수송	—	 - - 화

부정하고 득중(得中)도 못했다. 구사는 초육과 응 하나 초육은 구이와 더 가 깝고 친비해 구사를 돕지 않으니 구사는 송사에 이

기지 못해 (不克訟), 마음을 바꿔 천명을 새롭게 받고(復 卽命) 삶의 자세를 바꾸니 편안하고(渝安) 바르게 해 길 (貞吉)하다.

구사는 상괘의 유일한 음이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력 이 없어 송사에 이기지 못하니 소송을 끝까지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渝) 새로운 명에 따라야 한다. 스스로 하는 것을 삼가하고 남의 말에 따르는 것이 길하다.

변괘가 풍수환(風水渙)으로 '고민이 사라지고 흩어진 다'는 뜻이므로 원래 품었던 뜻과 마음을 바꿔서 추진하 면 오효에서 해결된다. 상전에서는 '명령이 바뀌어 상황 에 편안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잃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 '복즉명 투안정 불실야'(復即命 渝安貞 不失也)라고 말 한다. 즉 처음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을 끌면 상 황이 좋게 변해 나중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효사의 '투'(渝)는 '상황이 바뀌고 반전돼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송괘 구사((※각주=하락이수河洛理 數), 세운(世運)에서 구사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한직에서 복직한다(則閑中復 職/즉한중복직). 선비는 진취함에 그릇되지 않는다(則進取不失/즉진취불 실). 서속은 개괴천선하면 관의 송사에 불리하게 되지 않으니(則改過遷善而 官訟不撓/즉개과천선 이관송불요/撓 어지러울, 마음이 바르지 못할 요), 길 한즉 평안히 되고 흉한즉 안치가 되니 또한 마땅히 예방함이 가하다(吉則爲 平安 凶則爲安置 又當豫防之可也/길즉위평안 흉즉위안치 우당예방지가 야)))를 얻으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일들은 냉정히 돌아 와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대로는 성사가 안된다. 따라서 거래, 지망, 혼인 등은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부모 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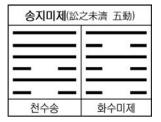
취업과 전업은 옛일이나 옛 주인에게 돌아가 복귀(復 卽命)하는 것이 좋다. 잉태는 변괘가 환괘(渙卦)로 흩어 져 유산될 수 있으니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천천히 찾아오고(復) 가출인은 건변손(乾變異) 으로 차나 배를 타고 멀리 갔다. 분실물은 찾을 희망이 없 으나 냉정히 생각해서 동남방을 찾아보면 가능성이 있다. 병은 배의 부위와 관련된 병이니 위나 식도병으로 경미하 다고 할 수 있으나 재발(復)에 주의해야 한다. 날씨는 바 람이 불고 비를 뿌린다.

'젊은 남녀가 혼전(婚前)에 임신해 그 방책 여하'를 묻는 '실점예'에서 송괘 구사를 득하고 다음과 같이 점단했다.

'송괘는 하괘 차남이 상괘 건부(乾父)에게 호소하는 상 으로 차남이 잘못을 사전에 먼저 건부에게 호소하면 완고 사효는 음위에 양효로 한 건(乾) 부친이 부드러운 손풍으로 변해 근심걱정이 환 (渙)으로 흩어진다. 건천 경금(庚金)과 합하는 을목일(乙 木日)을 택해 부친께 호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함에 실행해 건부(乾父)의 승낙을 받아 결혼했다.

> 송괘 구오의 효사는 '송, 원길'(訟, 元吉)이다. 즉 '소송에 크게 길하다. 송사를 직접 해결해 크게 길하다'는 의미이

> 오효는 양강(陽剛)한 지존(至尊)의 위로서 중정의 덕 을 갖춘 재판관이다.



구오는 송괘의 주괘주 효이고 양위에 양효가 있 어 강건중정(剛健中正)하 니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 결을 할 수 있어 원길(元 吉)하다.

초·이·삼·사효를 얻으면 시기상조이니 오효의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만일 초효를 얻으면 오효가 될 때까지 4일 또는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구오는 군위의 자리이 니 하괘의 이전투구(泥田鬪狗)를 구오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조선조 태종 때 어느 누구도 '조사위의 난'을 평정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서죽을 들어 송괘 구오를 득하고 태종이 직접 싸움터에 나가 해결했다.

상전에서는 '소송에서 이겨 크게 길하다는 것은 중정하 기 때문'이라고 해 '송 원길 이중정야'(訟 元吉 以中正也)

구오에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소송이 마무리 되고 어긋났던 일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만일 사효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한달 내 소송의 결론 이 나고 오효에서는 소송에 의해 의견이 관철되니 이를 '송원길'(松元吉)이라한 것이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구오((※각주 =하락이수(河洛理數), 세 운(世運)에서 구오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벼슬을 임명받고 봉배를 크게 한다 (則除授封拜之大/즉제수봉재지대). 선비는 등과에 급제를 나타나게 한다(則 登科及第之顯/즉등과급제지현). 서속은 영모에 구리를 반드시 이룬다. 정자

로정봉, 정언에 올바르게 배하게 된다(則營謨求利之必遂正字正奉正言正 拜/즉영모구리지필수 정자 정봉 정언 정배》를 얻으면, 사업, 지망, 거래, 혼인 등은 문제가 풀리고 골칫거리도 해결되고 취 직은 이뤄지며, 전업은 불가하나 현업에 종사하면 운이 열린다.

잉태도 무사 안산(安産)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고 가 출인과 분실물은 찾는다. 병은 잠열, 두통, 눈병으로 비교 적 치유는 빠르지만, 흉부에 열과 통증을 가진 중병이라 면 변괘가 화수미제(火水未濟)로 유혼괘(遊魂卦)가 돼 쾌유의 희망이 없다. 유혼괘는 변괘의 상하괘가 음양이 반대인 정대체인 괘를 말한다. 날씨는 오전에 비, 오후에 맑게 개인다.

'모인의 이혼 성부(成否) 여하'의 '실점예'에서 구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송괘상괘는건(乾)의 하늘로 위로 상승 하는 성질이 있고 하괘 감(坎)은 물로 낮은 곳으로 안주 하려 하니 서로가 기질이 맞지 않고 의견의 일치가 어려 워 다툼과 언쟁이 많아 오늘의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것 이다. 오효를 얻어 소송의 뜻이 이뤄지니 이혼은 하게 될 것'이라고 해 그러했다.

송괘 상구의 효사는 '혹석지반대, 종조삼치지'(或錫之 鞶帶 終朝三褫之)이다. 즉 '넓고 큰 띠(반대, 명령)를 하사 받는다 하더라도 아침까지 세 번을 빼앗긴다'는 뜻이다.



상효는 건(乾)의 극이 요 송사의 마지막에 와있 다.

혹 송사에 이겨서 패옥 으로 장식된 넓고 큰 가죽 띠를 하사 받을 수 있으나

인륜에 있어 가능한 한 해서는 안될 송사에 이겨서 받게 된 승리물은 하루 아침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이나 다시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

반대(鞶帶)라는 것은 옷 위에 묶는 가죽띠 또는 예복을 말한다. 혹 예복을 하사받으나 아침까지 세 번 다시 빼앗 긴다는 것으로 여러 번 줬다, 빼앗은 것을 반복한다. 상전 에서는 '큰 띠나 명령을 하사 받더라도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해서 '이송수복 역부족경야'(以訟受腹 亦不足敬 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어떠한 직책을 얻지만 적합하지 못해 오랫동안 직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물러나게 되거나 다시 세 번의 소송이 시작된다.

상구는 송괘의 끝효로서 송(訟)은 끝까지 하는 것은 좋 지 않다. 상효에서는 소송에서 이겨서 예복을 받는 것이 지만 이것은 조금도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니다. 또한 소송 을 끝까지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상처를 입혀 예복을 받는다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일도

+

상구는 부정(不正), 부중(不中)의 바르지 않은 자리의 양강(陽剛)의 효로 극에 있어 지나치게 강행해 성취하려 하면 후일 뜻밖에 후회할 일이 있으니 받았던 예복을 빼 앗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상구(〈각주 =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 (世運)에서 상구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성이 있다가 패가 있고 진이 있다가 퇴 가 있다(則有成有敗有進有退/즉유성유패 유진유퇴). 선비는 진취함에 반드 시 빠른 합격소식의 아름다움을 만난다(則進取 必見捷報之佳/즉진취 필견 첩보지가).서속은 흑쟁송을 만나거나 흑 중복을 잇는다. 송사를 끝까지 하면 흥하고 스스로 그치면 길하다(或見爭訟 或承重服 用之終訟 則凶 以止自訟 則吉/혹견쟁송 혹승중복 용지종송 즉흉 이지자송 즉길))를 얻으면, 쓸 데없는 고집을 피우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켜 오히려 신용을 잃거나 즐겁지 않은 일이 일어나 기쉬운때다.

소송 당사자와 경쟁해 설령 이긴다 해도 오히려 비용을 과다 지출하거나 남을 속이고 뒤에서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다. 따라서 사업, 지망, 기대 등은 지나치게 무리해 도중 에 무너지고 취직은 교만하거나 허영심이 강해 잘 되지 않 는다. 전업은 옮겨도 지금보다 좋아질 가망이 없다. 혼인 은 무리해 몸을 꾸미거나 준비해도 상대가 봐주지 않고 피 해 버려 성사되지 않는다. 잉태는 빈혈, 영양불량 등으로 난산의 우려가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가출인은 돌아오지 않으며 분실물은 찾기 어렵다.

병은 건변태(乾變兌)가돼목또는 인후 부위에 호흡기 질환이나 담해(痰咳)로 애를 먹고 정신착란, 노인의 정력 소모 등으로 근원치료가 어렵다.

'실점예'로 '동업이나 혼인 여하'의 점사에서 송괘 상구 를 얻으면 북에서 서북으로 거슬러 흐르는 물과 같아 서 로 간에 믿음이 없고 의기상합(意氣相合)하지 못해 헤어 진다.

'모인의 시장 선거 당선 여하'의 점사에서 '상구를 얻은 당사자는 여러 가지 책략을 써서 당선은 되나 유권자와 분쟁과 알력이 생기고 심복(心腹)과의 불신으로 결국 직 함(職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점고했다. 결과인 즉, 모 인은 당선됐으니 민심을 얻지 못해 사직권고를 받고 사임 하고 말았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 (매주토,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